

인터넷 정보과잉과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새로운 대안 연구

김상근
성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A Study on New Alternatives for Overflowing Internet Information and Blocking Harmful Information

Sang-Geu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SungKyl University

요약 정보과잉 및 유해정보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큰 사회문제로 체감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유해정보 노출, 악성 댓글, 가짜정보/정보조작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 기술/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가정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접근을 위해 심리학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에 대한 집착, 잘못된 정보의 이해, 흑백 고정관념과 선입견 등 주요 문제점들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제안하는 각 해결책은 새로운 시점으로 인터넷 중독과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에 관한 국가 기술/정책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 악성댓글, 유해정보, 인터넷 중독, 정보의 역기능, 정보조작

Abstract Problems related to information overload and harmful information have already expanded to national social problems as well as personal problems[4].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of Internet addiction, exposure to harmful information, malicious comments, fake information/information manipulation, and new alternatives that have recently been felt as social problems. Assuming that existing technologies/policies were not applied effectively, psychological cause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fundamental problem approach. As a result, internal problems such as obsession with knowledge/understanding of wrong information/black and white stereotypes and prejudice were analyzed as main causes. Each proposed solution aims to help improve national technology/policy regarding internet addiction and blocking harmful information.

Key Words : Malicious comments, Harmful information, Internet addiction disorder, Negative effect of informatization, Information manipulation

1. 서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은 수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현대인에게 인터넷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또 하나의 가상 세계이자 욕구의 해소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8년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91.5%에 육박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정보 과잉 및 유해정보 문제들은 대

표적인 인터넷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1]. 조사 결과 13세 이상 전체 직장인 중 71.8% 이상이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인터넷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중독 단계에는 현대인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또 다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사용의 경우 거리, 지하철, 버스 등 언제 어디에서나 웹 서핑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Sang-Geun Kim(sgkim@sungkyul.ac.kr)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의 정보는 항상 이해 관계없이 명확하지 않은 수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의 잘못된 이해 및 정보의 조작 등 다양한 스트레스(불안, 걱정, 두려움, 공포 등)를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유해정보는 정보의 조작 여부 그리고 정보의 옳고 그름과 같은 근본적인 정보의 이해에 더 중요성을 둔다. 대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 부정적인 경향의 정보, 고의로 조작된 정보 등 잘못된 정보들의 확산이 사회에 큰 파급력을 끼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 과잉 및 유해정보의 문제점을 심리학적 원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술적/정책적 해결책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된다. 2장은 정보 과잉과 유해정보의 문제점 분석에 관한 관련 연구를 설명하고 3장은 심리학적 원인별 새로운 해결책을 탐색한다. 4장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2. 관련연구

본 논문은 정보 과잉과 유해정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기능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 범위는 유아부터 10대 청소년, 20~50대 성인,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분류한다.

2.1 정보 과잉에 따른 문제점 분석

① 청소년 발달 이탈 행동, 부모나 또래 관계, 사이버 범죄와 왕따 문제 등 :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변화와 인간관계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전체 분석 대상에서 1일 인터넷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아 예방과 치료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성인까지 정서와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들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5].

② 성인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직장 스트레스 증가 : Kimberly Young은 인터넷 중독의 항목을 5가지(사이버 성적 중독, 사이버 관계 중독, 넷 강박충동, 정보 과부하, 컴퓨터 게임 중독)를 기준으로 척도를 분석했다. 한국 정보화진흥원의 국내 연구 적용 결과 내성 및 몰입에 대한 항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 중독으로 몰입하게 되는 경우 많은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장 스트레스와 연계되어 부정적인 결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6,7].

③ 노년층 -대인관계 소외감 및 애정 욕구 결핍,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 :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주

요 인터넷 사용 목적이 정보획득과 인간관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대인관계의 경우 은퇴 이후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된다. 또한, 노인의 놀이문화 부재로 인한 유일한 욕구 해소공간이 되기도 한다[8].

국가통계 포털 통계자료(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9세 유아 20.7%, 10~19세 청소년 29.3%, 20~59세 성인 18.1%, 60대 이상 14.2%로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용자 전체에서 77%가 이용시간이 과도하다고 느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나이별 구분되는 문제점 이외에는 공통으로 대인 기피, 불안과 신경증, 걱정과 불안 반응 등이 존재했다.

2.2 유해정보에 따른 문제점 분석

2015년 기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는 유해정보와 관련이 높은 음란정보, 불법도박, 유언비어, 명예 훼손, 반사회적 정보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10]. 주요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목적 비중이 메신저, SNS, 뉴스, 영화, TV, 동영상 순서로 나타난다. 이는 유해정보의 유통경로에 메신저와 SNS의 비중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11]. 이와 비교적 개인이나 집단성향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언론사의 인터넷뉴스 항목에 대해 유해정보 문제점을 추가로 분석한다. 영화와 TV의 경우 허구성에 대한 유무를 표현하고, 동영상의 경우 낮은 비중과 음란정보 정보와 관련된 불법 음란정보 차단 기능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분석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① 메신저 -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 기술중독 및 습관성 사용으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아 무의식중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비현실적 사회적 관계, 부정적인 의사소통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12].

② SNS - 밴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 메신저와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가 지나친 사생활 침해, 부정적인 직장 및 사회생활, 학업적 성취 저하, 대인관계 만족도 저하 등 정신적인 병리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13,14].

③ 뉴스 - 언론사 인터넷뉴스 게시판 : 가짜뉴스와 검증되지 않은 허위정보 유포, 혐오 표현과 정치적 극단주의적 게시물, 성적인 음란 콘텐츠 광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주요 정보의 조작과 차단, 특정 대상 비난 및 명예 훼손 등 문

제점이 존재한다[15,16].

Table 1과 같이 유해정보 항목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은 부정적인 요인과 함께 유언비어 및 반사회적 정보와 관련이 높았으며, 개인 또는 집단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짜뉴스의 경우 메신저와 SNS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특성상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Issue of Harmful Information(Media)

Media	Problem	Point
SNS	Social life, academic achievement decreases, decrease interpersonal satisfaction	Strengthen negative factors
Messenger	Unreal Social Relationships, Negative Communication Relationships	
Fake News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hate speech and political extremist posts, sexually explicit content ads	Anti-social impact on individuals and groups

3. 새로운 대안의 탐색

본 논문은 부정적인 영향과 비중이 높은 정보과잉과 유해 정보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을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메신저와 SNS 등 개인적 대인관계 문제와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문제점은 개인 또는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를 사회심리학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한다.

3.1 심리학적 원인

SNS상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개인의 내적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자기애) 향상과 사회적 안녕 등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원인이 크다[17]. 온라인에서 SNS 중독은 오프라인 사회성의 결여,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원하지 않는 교류에 대한 거부감,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가식적 표현의 충동 등 사용자의 심리적인 욕구 불만과 부정적 외적 자아에 요인이 크다. 이처럼 과도한 메신저, SNS 중독으로 개인의 이미지 관리와 타인에 대한 비방, 상대와 자신의 비교평가 등으로 욕구가 외적인 경향(부정적)에 집중될 경우 대인관계 악화와 함께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됨으로써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트리게 된다. 또한, 메신저와 SNS 등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 활용이 문제

점들의 회피나 부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요인(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내적 자아와 함께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보이는 외적 자아는 법적 규제 내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필요 불가결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요인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의 경우 기존 웹사이트 차단 기술, 사이트 내부 사용 기능을 제한 등 차단/제한 기술은 적절하지 않다. 복잡한 대인관계 문제(욕구)와 같이 또 다른 욕구 해소 방법(또 다른 기술적 방안)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새로운 해결책의 탐색은 욕구 해소 방법의 비중을 분산/대체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적 자아 욕구 해소(부정적) 비중을 줄이고, 내적 자아 측면(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향성이 필요하다. SNS의 경우 활용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법, 가짜뉴스의 경우 실시간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3.2 새로운 기술적/정책적 탐색

기존 유해정보 차단 기술(사이트 차단 또는 콘텐츠 필터링, 불법 앱 차단 등)은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영상과 이미지 등을 인식하는 단계에 와 있다. 차단, 필터링으로는 유해 정보 차단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심리학적 원인 분석 결과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할 방법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SNS의 미투, 좋아요, 리트윗 같은 기능들은 사용자 간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다. 그러나 클릭, 터치만으로 인간관계에 너무 쉽게 맺고 끊는 점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온라인상의 대화 언어표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목소리나 몸짓, 손짓, 대화 톤 등 정보를 읽고 인식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 해결책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사용자와 플랫폼 제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정부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법이다. 국내 민/형사법과 실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아직 자세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다. 혐오 정보에 대해 삭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 들도 점차 법적 규제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있다. 정책적으로는 많은 벌금 부과와 함께 상세 항목들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최근에

와서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가짜뉴스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모든 정보는 작은 조각만으로도 충분히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다. 관련 기관 검증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를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받은 가짜정보만을 판단한다면 극히 법적 규제 범위가 제한될 것이다.

온라인상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탐지/분석하는 기술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이 필요한데 예로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반 모니터링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의 수준으로 단어, 문장, 어휘/구분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일차적으로 수많은 정보를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부분 처리하고, 세부 기술적인 부분을 사람이 제어/판단하는 형태로 적용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보안서버 구축 의무와 같이 온라인상의 메신저와 SNS, 가짜뉴스 등 정보 검증 기능을 공통으로 구축/구현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기술적/정책적인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3 해결책 개선과 상호 적용방안

메신저와 SNS 등 대인관계 문제,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를 문제 해결책과 함께 이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① 메신저와 SNS(부정적) - 중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터넷 활용 비중 감소 : 메신저, SNS의 과도한 사용이 개인의 심리학적 정신질환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학교 내에서 SNS 중독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을 위한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 상담프로그램 등 교육적인 면에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성인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스트레스 상담 및 심리치료가 취업 이전 그리고 이후 직장 내에서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등을 교육기관과 국내 업체들이 국내 상담센터들과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기술적인 해결방안으로 인터넷 활용감소를 위해 스마트폰과 PC 앱 자체적으로 인터넷 활용 시간 평균을 계산하고 중독위험도를 표시하는 인공지능 도우미를 상재 관리 창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단순히 사용시간을 통계 분석 하는 것이 아닌 웹사이트, 영상 스트리밍, 인터넷 검색

등 내가 하루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을 주로 활용했는지 분석 가능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지속해서 중독 위험 수준에 대한 메시지를 알릴하고 위험 수준의 경우 심리상담/예방/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어떤 증상의 원인이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PC의 플랫폼 제공자는 이미 서버 측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사용 패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최근 인공지능 비서가 활성화 중에 있는데,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활용한다면 향후 강력한 인공지능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② 가짜뉴스(유언비어, 반사회적) - 강력한 법정 규제, 자동화된 수집/분석/판별 기술 : 현행 법률의 범위로는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등 각 법적 영역으로 정보공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규제방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우므로 법안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주도적인 법적 규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기업, 언론, 민간의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발의 중인 내용을 보면 가짜정보에 대한 4가지 유형을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내 삭제해야 한다. 이 법안은 본 논문에서 지적한 가짜정보 또는 가짜뉴스 존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현실성이 있다. Table 2는 기술적/정책적 해결책을 나타낸다.

Table 2. Solution by Problem(Technical and Policy)

Media	Technical	Policy
SNS Messenger	Improvement of SNS function(Language understanding)	Various reporting functions, enhanced penalties and diversified account restrictions
Fake News	Crawl real-time web news, negative language discrimination (AI, etc.)	High penalties, limited activity, Public apology

매출액의 10% 이상 과징금 부여를 강화하거나 일정 기간 언론 활동 금지처분, 가짜뉴스에 대한 공개사과 발표 등 다양한 불이익과 대처법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 제공자는 실시간 정보 수집과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짜뉴스 수집/판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구축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대형 포털을 시작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대표적인 SNS로 확대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약 80% 이상의 가짜뉴스를 미리 의심하여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일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를 분석하는지 알려진 방법에는 타임라인 분석, 출처분석, 언어분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추가로 문장 이외에 이미지, 영상 원본 DNA 검사 분야가 이에 적합하다. 이외 언어분석 분야에서 가짜뉴스 본문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단어 비율을 검사하는 것도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 정보과잉과 유해정보에 대해 새로운 탐색을 위해 현황분석(중독 비중 분석) 앞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메신저나 SNS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점에 대한 심리학점 원인 분석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개선 응용 프로그램을 일차적인 해결책으로 설명했다. 가짜뉴스의 경우 법적인 규제와 함께 정보 판별을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문제점 모두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였으며, 법적 규제가 기술적 해결책 개선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메신저와 SNS 중독은 가짜뉴스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강력한 법적 규제만으로 정보공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면, 원초적으로 원인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사람들이 항상 유연비어 및 가짜뉴스에 관심을 두게 되는 원인은 자극적인 정보는 하나의 욕구 해소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회병리적 현상(부정적)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언론(제공자), 플랫폼 제공자 등 다방면으로 문제점들을 확산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구체적인 대안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문제점 인식 그리고 정부, 기업, 언론, 민간의 해결책 논의가 핵심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은 기사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 가짜뉴스에 대해 식별하는데 지속해서 인력을 새로 고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러한 신뢰 검증 시스템을 도입/추진을 위해 정부와 언론사, 플랫폼 제공자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술적 그리고 법적 규제방안 등이 추가로 잘 적용된다면 국내 뉴스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ternet Usage Survey. National approval designated statistics No. 120005,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tress level(Work life, population over 13). Statistics Korea.
- [3] H. M. Lee, S. E. Yang & E. M. Kim (2016). Influencing Factor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Harmful Contents and Cyber-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 Parental Mediation versus Peer Norms.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0(3), 209-236.
DOI : 10.20879/kjcs.2016.60.3.008008
- [4] S. R. Bae, N. S. Park, K. H. Baek, & E. H. Ko. (2017). A Study on Countermeasures by Types of Adolescent Cyber Devianc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17-R06*, 1-235.
- [5] J. Y. Yang, J. W. Kim, S. Y. Kim & S. H. Hong. (2019). Transition in Adolescent's Cyber Delinquency : Applying Latent Transition Analysis. *Korean Youth Society*, 26(2), 101-130.
DOI : 10.21509/KJYS.2019.02.26.2.101
- [6] J. W. Kim & H. J. Kim (2011). Factor Analysis for Improving Adults' Internet Addiction Diagnosis.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21(1), 212-213.
UCI : G704-000319.2011.21.3.020
- [7] G. C. Jeong. (2016). Relationships among Mental Health, Internet Addic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4), 655-665.
DOI : 10.5392/JKCA.2016.16.04.655
- [8] J. W. Go & S. B. Kim. (2012). A Study of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32(2), 649-668.
- [9]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martphone dependence survey: Smartphone overdependence risk group. *Korea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10] J. K. Kim. (2012). Study on Internet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and Countermeasure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11]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5). Broadcasting Communi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Rules(No. 116).
- [12] B. S. Kim. (2014). A Study on Antecedents of User Addiction in Mobile Messenger Servi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95-103.
DOI : 10.14400/JDC.2014.12.3.95

- [13] I. W. Jung & K. H. Yoo. (2016).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and Users' Mixed Perception toward SNS. *Information Society & Media*. 17(3), 150-171.
UCI : G704-SER000008957.2016.17.3.009
- [14] S. Y. Kim, M. J. Park & B. K. Park. (2018).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4), 454-462.
DOI : 10.5762/KAIS.2018.19.4.454
- [15] A. R. Park (2019). A Critical Perspective on Regulating 'Fake News' & Disinformation.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56(2), 113-155.
DOI : 10.22174/jcr.2019.56.2.113
- [16] S. O. Yun. (201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Fake News Regulation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18(1), 103-138.
DOI : 10.26542/JML.2019.4.18.1.103
- [17] J. U. Kim & S. R. Kim. (2018). Th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on SNS Addiction Proneness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4), 530-540.
DOI : 10.5392/JKCA.2018.18.04.530

김 상 근(Sang-Geun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중앙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공학 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
- 2003년 ~ 2004년 : Sydney University 방문 교수

- 관심분야 : 정보보안, 핀테크, 빅데이터, 소프트웨어공학
- E-Mail : sgkim@sungkyul.ac.kr